東洋哲學·제56집(2021. 12.)
http://dx.doi.org/10.19065/japk.2021.12.31.285

구봉 송익필의 리기묘합적 사유*

- 한국유가철학 방법론 모색 -

김동희(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국문초록

한국유가철학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방법론적 문제인데, 이는 어떻게 한국유가의 철학적 사유를 탐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조선유가의 철학적 사유에 관한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다카하시 도오루의 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한 主理·主氣라는 배타적인 이원적 사유나 중국 신유학(주자학)의 발생론적인 태극(리) 일원적 사유의 틀을 암묵적으로 의존해 왔다. 물론 다카하시 연구가 학파와 당쟁을 연계시키는 정치적 당파성에 입각한 연구라는 점과 그 연구가 근대서양철학의 실체론적 사고라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해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다카하시 연구의 학문적 경향이나 태도를 비판 한 것이지, 조선유가철학의 철학적 사유나 그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구봉 송익필의 理氣妙合的 思惟와 그 구조 및 전개를 탐구한다. 탐구과정에서 구봉은 퇴계와 율곡과 마찬가지로 중국 주자학의 태극 일원론적 사유 방식을 지양하는 리기묘합적 사유를 공유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구봉은 퇴율과 다르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리기묘합적 사유를 전개하는데 그 학파와 당파에 있어서 율곡의 기호학파에 가깝지만, 퇴계의 리기묘합적 사유에 나타나는 리의 수사학적 능동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사유와 부합하고 있음을 논구한다. 구봉의 리기묘합적 시유와 그 구조 및 전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봉은 리기묘합적 사유의 존재론적 차원과 우주론적 차원을 '理在氣中'의 구조 아래 각각 '太極含動靜'과 '太極有動靜'으로 전개하고, '理在氣中'에 정합한 심성론의 '性在心中' 구조에서 四端七情을 논한다.

주제어

구봉 송익필, 리기묘합, 리재기중, 성재심중, 태극함동정, 태극유동정, 사단칠정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또한 제3회 구봉문화학술원 정기학술대회(2019.10.19.)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www.kci.go.kr

Ⅰ. 문제 제기 및 연구 방향

高橋亨(1878~1967)의 조선 유학사 연구가 退溪 李滉(1501~1570)과 栗谷 李珥(1536~1584)의 철학적 사유 방식을 각각 主理派와 主氣派로 규정한 이후,[1] 한국유가의 철학적 사유를 탐구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 왔다. 예를 들면, 해방 이후 현상윤의 『朝鮮儒學史』와 배종호의 『朝鮮儒學史』는 다카하시의 주리·주기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2] 그런데 다카하시의 연구는 엄밀한 의미에서 퇴계와 율곡의 철학적 사유 방식을 탐구했다기보다는 학파와 당쟁을 연계시키는 당파성에 입각하고 있다. 사실 다카하시에 앞서 식민지 시기 장지연의 『朝鮮儒教淵源』이라는 통사론적 근대 저술서가 있지만, 이 또한 철학적 사유에 대한 탐구라기보다는 한국유교의 연원을 유학자들의 경서를 발취하여 그 특성을 역대의 흥망과의 관계 속에서 논술하면서 유학자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었다.[3]

한편 다카하시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지속되어 왔다. 윤사순은 다카하시의 조선유학사 연구는 주자학에 대한 고착성, 종속성, 그리고 당파성에 기초한 연구라고 비판하였고,[4] 윤사순의 연구를 계승한 리기용은, 헤겔과 신칸트주의적 근대 서양철학과 사회진화론을 다카하시의·주리·주기 이분법적 연구 방법의 사상적 배경으로 논구하였다.[5] 다만 이러한 비판적 연구는 다카하시의 퇴계와 율곡의 철학적 사유나 그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학문적 경향이나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말하자면 다카하시의 한국유가의 철학적 사

1) 高橋亨,「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韓國支那文化の研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第二部論纂第一輯), 刀江書院, 1929.
2) 玄相允,『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49/ 裵宗鎬,『朝鮮儒學史』, 延世大學校出版部, 1974.
3) 張志淵,『朝鮮儒教淵源』, 匯東書館, 1922.
4) 尹絲淳,「高橋亨의 韓國 儒學觀 檢討」,『한국학』12집,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1976.
5) 리기용,「타카하시 토오루(高橋亨) 조선유학 이해의 허와 실」,『율곡학과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태암 황의동교수 정년기념 논총』, 책미래, 2014, 1000~1029쪽.

www.kci.go.kr

유나 그 연구 방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철학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다카하시 연구에 있어서 퇴계와 율곡의 철학적 사유에 나타난 대립적 구도는 냉전 시기는 물론 현재까지도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조선철학사 연구에 따르면, 퇴계와 율곡의 철학적 사유는 중국의 주자학을 교조적으로 수용한 다른 관점인데, 율곡은 소박한 유물론적 입장을 가지지만 퇴계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관념론이다.[6] 그리고 이상익은 데카르트의 원자론적 실체 개념에 입각하여 퇴율의 리와 기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퇴계는 리와 기를 독립적 실체로 이해한 반면 율곡은 독립적 실체로 보지 않았으므로, 퇴율의 철학적 사유를 각각 리기 이원론과 리기 일원론이라고 규정했다.[7] 이상익이 서양의 실체 개념에 의지하여 퇴계의 철학적 사유를 理氣實不相雜의 원리만을 적용하고, 반면에 율곡의 철학적 사유를 理氣元不相離의 원리만을 적용하였을 때, 그 규정은 마땅하고 타당하다. 그러나 퇴계와 율곡은 리기묘합적 사유의 두 원리 理氣元不相離(리와 기는 본래부터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원리)와 理氣實不相雜(리와 기는 진실로 뒤섞일 수 없다는 원리) -를 공유하면서도 각각 그 철학적 사유를 독창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상 한국유가철학에 관한 선행 연구를 돌아보았을 때, 한 가지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는 바, 한국유가의 철학적 사유방식에 대한 탐구의 문제이다. 과연 한국유가철학은 중국의 주자학을 교조적으로만 수용하고 있는가? 또한 한국유가철학을 퇴계와 율곡을 중심으로 한 학파와 당쟁을 연계시킨 다카하시의 당파적인 이분법적 연구 방법은 타당한가? 그리고 서양철학의 실체 개념에 입각한 한국유가철학의 철학적 사유 방식에 대한 탐구는 리와 기를 실체화한 다카

6) 정진석, 정성철, 김창원 공저, 『조선철학사』(상), 과학원출판사, 1960, 102~131쪽. 이후 유물사관에 입각한 조선철학사 연구는 다음 책을 참고할 것. 주홍성 외 공저,『한국철학사상사』, 김문용 · 이홍용(역), 예문서원, 1993.

7) 이상익, 「理氣一元論과 理氣二元論의 哲學的 特性」, 『退溪學報』제91집, 퇴계학연구원, 1996, 43~102쪽. 이 논문은 퇴율철학연구에서 율곡철학을 리기 일원적 사상체계로 연구한 채무송을 따른 것이다. 채무송, 『퇴계 율곡 철학의 비교연구』, 성대출판부, 1985 참조.

www.kci.go.kr

하시의 주리파와 주기파라는 이분법적 연구방법을 실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龜峯 宋翼弼(1534~1599)의 철학적 사유를 리기묘합적 사유로 탐구할 것이다. 구봉은 그 학파와 당파에 있어서 율곡과 가까운데, 퇴계의 리기묘합적 사유에 나타나는 리의 수사학적 능동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사유를 전개한다. 그렇다면, 구봉의 철학적 사유의 탐구는 그 자체로 위에 제기한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구봉이 理氣元不相離와 理氣實不相雜라는 두 원리로 구성된 리기묘합적 사유를 어떻게 독창적으로 전개하고 하고 있는지를 그 사유 구조를 통해 논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리기묘합적 사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퇴율의 묘합적 사유의 공유하고 있는 요소를 고려하며 간략히 설명한다. 그리고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를 존재론적 차원(존재의 근원과 본질의 차원)과 우주론적 차원(유행과 생성의 차원)으로 분석하고 그 사유적 구조를 해명하고, 이를 심성론에 적용하여 성심묘합적 사유와 그 구조를 추론하여 구봉이 어떻게 사단칠정론을 전개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Ⅱ. 리기묘합적 사유에 대한 예비적 진술

다카하시가 퇴계와 율곡의 철학적 사유를 主理派와 主氣派라는 이원적인 대립적 구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퇴계와 율곡은 각자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면서도 리기묘합적 사유를 공유한다. 퇴계와 율곡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리와 기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차용한다: 리는 無形·無爲이고, 기는 有形·有爲이다. 그러나 퇴율의 리기묘합적 사유는 理先氣後에 입각한 理一分殊 또는 道一分殊라는 리 일원론적 사유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의 주자학

www.kci.go.kr

과는 다르다.[8] 朱晦庵(1130~1200)은 리기묘합적 사유의 두 원리인 리기의 우주론적 차원의 不相離를 말하고 있지만, 존재론적 차원의 元不相離를 말하지 않는다. 만약 리기의 조재론적 차원의 원불상리를 주회암이 말했다면, 리선기후에 입각한 리일분수라는 주자학의 리 일원론적 사유체계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서 중국의 주자학과 한국유가철학의 작지만 큰 차이가 발생한다. 元不相離에서 '元'은 '본래부터'라는 뜻으로 존재론적 차원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리기가 원불상리가 아니라면 필연 理는 능동적으로 작동하여 氣를 낳는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주자학의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로서 리가 능발하면 리의 무위적 속성에 이율배반이 발생하고, 그 리의 속성은 기의 유위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퇴율의 리기묘합적 사유는 다카하시의 리기 이원론적 사유와 주자학의 리 일원론적 사유와 구별된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다. 구봉도 또한 퇴율의 리기묘합적 사유를 공유하며 그 철학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 리기묘합적 사유에 대한 다음 세 가지 예비적 진술을 덧붙일 가치가 있다. 첫째는 리기묘합적 사유의 구조에서 비롯된 리기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 묘합적 사유에서 리와 기의 구조는 이원론적인 배타적 대립구조가 아니라, 서로 內含하는 相須(존재하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함)구조를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리와 기는 본래부터 배타적인 이원적 실체로서 이분되지 않으면서도 각각 서로 다른 속성이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리기묘합적 사유에서 리와 기는 서양의 원자론적으로 배타적인 실체 개념이 아니라, 생성과정 속에 있는 실재 개념이다.

둘째는 리기묘합적 사유의 두 전개방식에 관련된다: 리기의 一而二(하나이면서 둘)과 二而一(둘이면서 하나)의 전개 방식. 리기의 一而二 묘합적 방식은 리기가 내함적 상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존재론적 차원에서부터 시공간적 분리나 선후가 없는 본래부터 묘합한 本合 상태에 있고, 우주론적 차원으로 분절없이

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김동희 , 「퇴율의 묘합적 사유」,『퇴계학논집』18,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60~64쪽.

www.kci.go.kr

전개되는 방식이다. 이는 리기가 다차원의 생명으로 생성분화하는 현상을 뜻한다. 다만 리기묘합의 존재론적 차원의 一은 우주만물의 근원적 차원을 가리키지만, 근원적 실체로서 고정불변의 하나가 아니고, 오히려 낳고 낳음을 쉬지 않고(生生不息) 끊이 없이 순환하는(循環不已) 一로서 그 근원적 실체로서 일자가 빠진 생성과정의 통일성을 상징하는 一이다. 그리고 리기의 二而一 묘합적 방식은 다차원의 생명과 실존을 가리키는 우주론적 차원에서 그 근원적 차원을 미루어 보는 전개방식이다. 그러므로 '二而一'에서 二는 생명의 다양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二는 단지 유한수가 아니라 다양성을 함의한 무한수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리기묘합적 사유의 전개방식은 二에서 一로의 존재론적 차원으로의 소급 과정뿐만 아니라, 一에서 二로의 다양성으로 확장되는 우주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양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세째는 리기묘합적 사유의 논리에 관한 것이다. 리기묘합적 사유의 논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A , or B'의 배타적 형식논리가 아니다. 배타적 형식논리에서 리와 기는 一物이 아니면 異物이고, 異物이 아니면 一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기의 묘합적 사유의 논리는 리와 기를 부정('Neither A nor B') 하면서도 모두 긍정('Both A and B')라는 역설적 종합 논리여야 한다. 부정의 논리로 논술하면 리와 기는 異物도 아니고 一物도 아니다. 긍정의 논리로 논술하면, 리와 기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Ⅲ.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

3-1. 존재론적 차원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는 퇴율이 공유하는 두 가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리와 기는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아니면 취할 바가 없다.

www.kci.go.kr

> 이른 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저것이 동정하면 곧 이것이 동정한다. 동하면 동하고 정하면 정하니 어찌 잠시라도 떨어진 적이 있었겠는가? [9]

리와 기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一發·相須 관계이다. 그러므로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 없고 이것이 아니면 취할 바가 없고, 저것이 동정하면 곧 이것이 동정한다. 구봉은 이러한 리기의 상수관계를 묘합적 사유의 두 구성원리인 二而一의 원불상리 원리와 一而二의 실불상잡 원리로 논하고 있다. 리와 기는 묘합적 일발·상수관계에 있으니, 잠시로 떨어진 적이 없고 한가지로 동정한다. 구봉은 이와 같은 두 구성원리를 전제로 리기묘합적 사유를 존재론적 차원과 우주론적 차원으로 전개한다. 그 존재론적 차원은 "太極含動靜(태극은 동정을 머금고 있다)"는 문구로, 우주론적 차원은 "太極有動靜(태극은 동정을 지니고 있다)"는 문구로 표현하고 있다.

> 문: "태극은 동정을 머금고 있다"고 말하고 "태극은 동정을 지니고 있다"고도 말하는데, '머금고 있다'의 '含'과 '지니고 있다'의 '有'는 그 뜻이 같은 것인가?
> 답: '含'은 본체로써 말한 것이고, '有'는 유행으로써 말한 것이다. '含'과 '有'는 뜻이 있는 바, 朱子가 이에 대해 말한 것이 정밀하다.[10]

구봉의 '太極含動靜'의 含'과 '太極有動靜' 의 '有'에 대한 대답은 주회암의 割

---

9)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理之與氣, 非彼無我, 非我無所取. 所謂二而一一而二者也.彼之動靜, 卽我之動靜也, 動則動靜則靜, 何嘗少離."

10)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問: 謂太極含動靜, 謂太極有動靜, 含之與有, 其一義耶. 答: 含以本體而言, 有以流行而言. 含之與有, 義有所在, 朱子下語之精密處也." 주회암의 '太極含動靜' 과 '太極有動靜'에 대해서는 『朱子大全』, 卷四十五, 「答楊子直」, "太極含動靜(以本體而言), 太極有動靜(以流行而言)."을 참조할 것.

www.kci.go.kr

註에 의거한다. 말하자면 주회암의 割註를 따라 구봉은 “太極含動靜”을 그의 묘합적 사유의 존재론적 차원으로 삼았다. 이는 본체의 리와 기의 본합 상태를 언명한 것으로, 이후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의 구조를 분석하는 단서가 된다. 또한 주회암의 割註를 따라 구봉은 “太極有動靜”을 그의 리기묘합적 사유의 우주론적 차원으로 삼았다. 구봉은 그 차원의 다름을 ‘含’과 ‘有’가 각각 뜻하는 바라고 논술한 것이다.

그런데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본체의 기에 대한 직접적인 논술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주회암의 割註를 전거로 삼은 것의 귀결인데, 상술했듯이 이는 중국 주자학의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를 논증하는 관건은 리기사상에서 존재론적 차원의 ‘태극’에 상응하는 본체의 기에 있다. 구봉의 본체의 기에 관한 한, 그의 수양론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 靜은 치우친 것이나 敬은 動靜을 관통한다. 그러나 반드시 정을 근본으로 하여, 평소 맑고 고요함(湛然虛靜)에 거해야 하는데, 마치 가을과 겨울이 만물을 고요히 감춘 것(祕藏)과 같다. 바야흐로 만사에 응해서는 착오가 나지 않으니, 마치 봄과 여름에 만물이 發生하여, 각각 그 자리를 얻는 것과 같다. [11]

靜을 근본으로 삼고 동정을 관통하는 敬의 수양학이다. 구봉은 靜의 때를 가을과 겨울의 祕藏으로, 動의 때를 봄과 여름의 發生으로 묘사한다. 구봉에게 있어서 성인은 敬을 통해 동정의 덕에 부합하나, 修道에 있어서 항상 靜을 근본으

11)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問: 周子則說靜字, 程子則說敬字. 二說之不同, 何耶. 亦有詳略之可論耶. 答: 靜則偏, 而敬乃通貫動靜. 然必以靜爲本, 平居湛然虛靜. 如秋冬之祕藏. 應事方不差錯, 如春夏之發生, 物物得所.” 밑줄은 필자의 것.

www.kci.go.kr

로 한다.[12] 성인이 靜을 근본으로 한다고 할 때, 그 靜은 마음의 적연부동한 고요함인데, 그 고요함이 본체가 '湛然虛靜'이다. '담연허정'은 화담이 太虛를 형용한 말인데, 이는 기의 본체로서, "그 크기는 한이 없고 그 이전에는 시작이 없고, 그 후를 궁구할 수 없다."[13] 말하자면 구봉의 '담연허정'은 퇴계와 율곡의 '湛一淸虛'와 같은 존재론적 차원의 본체의 기를 가리킨다고 하겠다.[14]

또한 구봉은 리기묘합적 사유의 존재론적 차원인 "太極含動靜"을 "太極生陰陽"과 연관시킨다.

> 문: 사물의 현상적 측면으로 보면 음양 가운데 태극이 있는데(陰陽中有太極,),『太極圖說』은 도리어 태극이 음양을 낳는다(太極生陰陽) 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
> 답: 음양의 발생 근원으로 올라가 궁구하면 태극이 음양을 낳는 것이고, 그 나타나 있는 단서를 살펴보면 음양이 태극을 머금고 있는 것이다.『太極圖說』은 발생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태극이 음양을 낳는다고 말한 것이다. [15]

사물의 현상적 측면으로 볼 때 음양 가운데 태극이 있다. 온 우주만물이 각각

---

12)『龜峯集』, 卷三,「雜著」,〈太極問〉, "聖人合動靜之德, 而常本於靜, 主修道而爲言也."

13)『花潭集』, 卷二,「雜著」,〈原理氣〉, "太虛湛然無形, 號之曰先天. 其大無外, 其先無始, 其來不可究, 其湛然虛靜, 氣之原也." 실제 구봉은 '太虛'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태허에는 기가 충만하여 조금도 결여한 곳이 없다"고 했다.『龜峯集』, 卷三,「雜著」,〈太極問〉, "太虛之間, 便有氣克塞無欠缺處."

14) 퇴율의 존재론적 차원의 기에 관한 한, 다음 문구를 참고할 것.『退溪集』, 卷三十九,「書」,〈答李公浩〉, "湛一氣之本, 當此時未可謂之惡." /『栗谷全書』, 卷十,「書」二,〈答成浩原〉, "氣之本, 則湛一淸虛而已."

15)『龜峯集』, 卷三,「雜著」,〈太極問〉, "問: 以事物看之, 陰陽中有太極, 而圖却謂太極生陰陽, 何也. 答: 原其生出之初, 則太極生陰陽也, 觀其見在之端, 則陰陽涵太極也. 圖主生出, 故云太極生陰陽."

www.kci.go.kr

태극을 갖추고 있는 형상이다. 이 형상은 물음의 '陰陽中有太極'과 그 대답인 "陰陽涵太極"과 같다. 그러나 그 발생론적 차원에서 보면 태극은 음양을 낳는 "太極生陰陽"이다. 이는『太極圖說』의 "태극은 동해서 양을 낳고, 동이 지극하면 정하고, 정해서 음을 낳고, 정이 지극하면 동하는데, 한번 동하고 한번 정하는 것은 상호 그 근본이 된다."[16]는 말에 관한 축약적 표현으로, 태극(리) 일원의 발생론적 사고이다.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따르면 태극은 동정하고, 그 일동일정에 따라 음과 양이 생성된다. 그럼 태극의 동정의 문제와 리기의 선후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

구봉은 이러한 문제를 염두해 두고 '태극함동정'의 리기의 존재론 차원을『太極圖說』의 "無極而太極(무극이면서 태극이다)"를 통해 해명한다.

> 문: 『漢書』「律曆志」에서는 "태극이 三才을 포함하면서 하나이다."라고 하였고, 『莊子』「大宗師」에서는 "道가 태극에 선재한다."라고 하였으며,『老子』25장에서는 "혼연히 이루어진 物이 있는데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 라고 하였고,『易』은 "역에 태극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 주장과『太極圖說』의 이른바 태극은 그 같고 다름을 분별할 수 있는가?
>
> 답: 『漢書』「律曆志」에서 "태극이 三才를 포함한다" 고 한 것은 형기가 이미 갖추어져 있으니『太極圖說』이 말한 태극이 아니다. 『莊子』「大宗師」에서 "道가 태극에 선재한다."고 한 것은 태극을 도라 여기지 않았고 道 또한 태극 위에 일개 공허한 물건이니,『太極圖說』이 말한 태극이 아니다.『老子』25장에서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고 한 것은 얼핏 이 리(태극)을 가리키는 것 같으나 노자는 진실로 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易』에서 말한 바 "역에 태극이 있다"는 태극은

16) 『周敦頤集』, 卷一, 「太極圖說」, "太極, 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www.kci.go.kr

> 음양의 변화 가운데 나아가 그 리가 있음을 말한 것으로, 그 표현이 『太極圖說』과 같지 않으나 말한 리는 동일하다.『太極圖說』이 말한 "無極而太極"은 음양을 섞지 않고 말한 것이다. 생각해 보건데,『漢書』「律曆志」의 태극과『莊子』「大宗師」의 태극은 음양을 섞어 말한 것이고,『老子』25장 의 (천지보다 먼저 생겨났다는) 혼연히 이루어진 物도 또한 리의 묘를 깨닫고 말하지는 못했다. [17]

구봉에게 있어서『太極圖說』의 '無極而太極'은 리기묘합의 존재론적 차원의 또 다른 언명이다. 구봉에 따르면 이 구절에 본체의 음양의 기를 섞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재한다. 그러나『漢書』의 태극이 포함三才는 형기이므로 본체의 기일 수 없다. 또한 '無極而太極극'의 문구에서 '而' 자는 그 의미가 점차적인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아니다. 오히려 가벼운 의미로 무극과 태극 시공간의 선후나 구별을 나타내지 않는다.[18] 무극도 태극도 동일한 리인데, 태극은 리의 존칭일 뿐이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렴계가 무극이라 한 것은 태극인 리를 일개 사물로 여겨 만물과 그 조화의 근원이 되기에 부족한 것으로 될까 염려한 까닭으로, 無極의 '無'자와 太極의 '太'는 보태거나 뺄 수가 없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태극 위에 도(道)가 선재한다는『莊子』「大宗師」의 태극은 존재론적 차원의 리

---

17)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問: 漢志謂太極函三爲一, 莊子謂道在太極之先, 老子云有物混成先天地生, 易云易有太極. 此四說與周子所謂太極同異, 可分耶. 答: 漢志謂函三則形氣已具, 非周子所謂太極也. 莊子謂道先太極, 則不以太極爲道, 而道又太極上一箇空底物, 非周子所謂太極也. 老子云先天地生, 似指斯理, 而老子實非知理者也. 易所云易有太極, 就陰陽變化中言有此理,下語又與周子不同.然所謂理則一也. 周子所謂無極而太極, 不雜乎陰陽而爲言者也. 蓋漢志之太極, 莊子之太極, 雜陰陽而爲言者也, 老子之有物混成, 亦不得言理之妙."

18)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問: 無極而太極, 此而字, 重耶輕耶, 抑有積漸之義耶. 旣曰無, 又曰太, 何也. 無極太極, 孰先孰後, 亦有方位耶. 答: 無太二字, 添減不得者也. 而字輕, 無積漸, 無先後, 無方位. 囚不知一而字之輕, 便生陸氏議論." 구봉은 '而'자의 가벼운 의미를 알지 못하여 주륙논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19)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太極理之尊號也."

www.kci.go.kr

(理)일 수 없다.『老子』 25장의 '혼연히 이루어진 物'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리기묘합의 존재론적 차원을 말하는 것 같으나, 구봉은『老子』는 리를 모른다고 판단했다. 구봉에게 있어서 리기의 존재론적 차원에 태극의 리와 음양의 기는 묘합적 실재이다. 그러므로 음양의 기없는 태극의 리가 홀로 허공에 매달려 있을 수 없다. 그럼 구봉에게 있어서 태극은 실제로 동정하는가?

> 문: 천지 간에 다만 動과 靜 두 개의 단서가 있을 뿐이다. 태극은 그 동인가? 그 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동정 간에 실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동정 밖에 실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동정하는 것이 태극인가? 그 동정의 所以가 태극인가?
> 답: 동하지 않고 정하지 않으면서 동정을 머금고 있는 것은 태극이고, 동정 양단이 순환하여 멈추지 않는 것은 기이다. 생각해 보건데 동정하는 것은 기이고, 동정의 所以는 태극이다.[20]

구봉에게 있어서 태극은 動도 아니고 靜도 아니며, 동정의 사이에 실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동정 밖에 실재하는 것도 아니다. 태극은 동정의 所以인데, 이는 동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의 근본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태극의 所以는 최초의 작동인 혹은 부동의 동자(Unmoved Mover)라는 뜻이 아니다. 동정은 음양이고, 동하고 정하는 것은 음양의 기로, 끊임없이 循環不已 한다. 말하자면 음양의 기는 한번 동하고 한번 정하여 상호 그 근본이 된다는 뜻이다. 태극이 실제로 동정하여 음과 양을 낳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의 존재론적 차원에서 본체의 리와 기는 묘합 상태에 있어 선후 동정의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구봉에게 있어서 본체의 기

20)『龜峯集』, 卷三,「雜著」,〈太極問〉, "問: 天地之間, 只有動靜兩端. 太極其動耶, 其靜耶, 抑在此動靜之間耶,抑在此動靜之外耶, 抑動靜者, 太極耶. 其所以動靜者, 太極耶. 答: 不動不靜, 而含動靜者, 太極也. 動靜兩端之循環不已者, 氣也. 蓋動靜者, 氣也, 所以動靜者, 太極也."

www.kci.go.kr

가 본체의 리의 순선(선 그 자체)에 작용하지 않은 때가 있다.

> 문: 태극은 형이상자이고, 음양은 형이하자이다. 형이하에 또한 태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형이상에도 또한 음양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음양 태극에 필경 선후를 말할 수 없는가?
>
> 답: 리와 기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旣不相離)면 본래부터 선후로 나눌 수 없다. 그러나 朱子가 "형이상과 형이하로부터 말하면, 어찌 선후가 없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만약 그것을 말하고자 하면, 그 선후 또한 생각할 수 있다. 태극은 리이고, 음양은 기이다. 형이상에 어찌 기가 있겠는가? 기에 리가 있지 않은 적이 없지만, 리에 혹 기가 작용하지 않은 경우(未嘗用事處)가 있다.[21]

리와 기는 본래부터 둘이면서 하나이다. 곧 '旣不相離'는 '理氣元不相離'이다. 그러므로 선후로 나눌 수 없다. 그러나 형이상에는 형이하인 기질적 형기가 있을 수 없다. 형이상자는 형이상자이고 형이하자는 형이하자이다. 리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이다. 리와 기는 서로 뒤섞을 수 없다. '理氣實不相雜.' 다만 그 존재론적 차원에서 형이상자인 리에도 본체의 기는 있다. 구봉이 말한 존재론적 차원의 湛然虛靜으로서 元氣가 바로 그 기이다. 이 본체의 기는 본체의 리와 묘합상태에 있다. 다만 구봉에게 있어서 그 리의 순선(선 그 자체)에 작용하지 않은 때가 있는데, '未嘗用事處' 가 그것이다. 이는 퇴계의 '未用事時'에 해당하는 것으로, 四端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22]

---

21)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問: 太極, 形而上者也, 陰陽, 形而下者也. 形而下, 亦可謂有太極, 則形而上, 亦可謂有陰陽耶. 陰陽太極, 竟無先後之可言歟. 答: 理氣旣不相離, 則固不可分先後. 而然朱子曰, 自形而上下者言, 豈無先後,必欲言之, 則其先後, 亦可想矣. 太極, 理也, 陰陽, 氣也. 形而上, 豈有氣哉, 於氣,理未嘗不在, 而於理, 或有氣未嘗用事處." 주희암의 말은 『朱子語類』, 卷一, 「理氣上」, 10조목 참조.

22) 『退溪集』, 卷三十九, 「書」, 〈答李公浩〉, "惟是氣未用事時, 理爲主, 故純善耳."

www.kci.go.kr

3-2. 우주론적 차원

구봉에게 있어서 리기묘합적 사유의 우주론적 차원은 "太極有動靜"이라는 문구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천명의 유행을 뜻한다.

> 문: 동정은 태극의 동정인가? 음양의 동정인가? 동정을 논할 때 모두 음양을 가리키는데,『太極圖說』은 "태극이 동해서 양을 낳고, 정해서 음을 낳는다(太極生陰陽)"는 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태극 또한 동정할 수 있는가?
> 답: "태극에 동정을 가지고 있다(太極有動靜)"는 것은 천명의 유행이다. 생각해 보건데 태극은 동정의 이치(理)이기 때문에 음양이 능히 동정한다. 동정하는 것은 음양이고, 동정하는 所以는 태극이다.[23]

인용한 문과 답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질문은 리기의 존재론적 차원을 "太極生陰陽"을 묻는데, 오히려 리기의 우주론적 차원인 "太極有動靜"으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봉에게 있어서 존재론적 차원이든 우주론적 차원이든 동정하는 것은 음양이고, 동정하는 所以, 곧 동정의 이치가 태극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우주론적 차원의 동정하는 기와 그 所以,인 리의 자기 전개가 바로 천명의 유행이다. 다시 말해 우주론적 차원에서 리기는 유행하여 우주 만물을 생성한다.

구봉은 리기가 유행하여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과정을 '氣化'와 形化'의 단계로 설명한다. 그 전거는『易』과『太極圖說』이다.

> 문:『易』「序卦」에서는 "천지가 있고 난 연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고 난 연후에 男女가 있다"고 전하고,『太極圖說』에서는 "건도는

23)『龜峯集』, 卷三,「雜著」,〈太極問〉, "問: 動靜是太極動靜乎, 是陰陽動靜乎. 論動靜皆指陰陽, 而圖曰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然則太極亦能動靜乎. 答: 太極之有動靜, 是天命之流行也. 蓋太極有動靜之理, 故陰陽能動靜也. 動靜者, 陰陽也, 所以動靜者, 太極也."

www.kci.go.kr

男을 이루고 곤도는 女를 이루어, 두 기가 서로 교감하여 만물을 생성한다." 두 전거의 말이 같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

답: 『易』과 『太極圖說』은 모두 천지가 있고 난 연후에 氣化가 있고, 기화가 있고 난 연후에 形化가 있음을 전한다. 『易』「繫辭下」에서 "천지 음양의 두 기가 왕성하게 어우러져 만물이 응취된다"는 말은 기화이고, "남녀가 정기를 교합하여 만물이 생성된다"는 것은 형화이다. 『太極圖說』에서 "양의가 섰다" 것은 천지이고, "건도는 男을 이루고 곤도는 女를 이룬다"는 것은 기화이고, "두기가 교감하여 만물을 생성한다"는 것은 형화인데 무엇이 같지 않음이 있겠는가?[24]

질문은『易』과『太極圖說』은 만물과 남녀의 생성순서의 다름에 있는 것 같다. 『易』은 만물이 먼저고 남녀가 뒤에 있는데, 『太極圖說』은 남녀가 먼저고 만물이 뒤에 있다. 대답을 자세히 보면『易』의 남녀는 만물을 형화하는 부모의 기로, 단순히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이미 어떤 종류의 사물이 있고 난 후에 그 종을 생성하고 번식하는 암수(牝牡)를 뜻한다.[25] 또한『太極圖說』의 남녀는 아직 어떤 종류의 사물이 있기 이전에 기화하는 천지 음양의 기이다.[26] 다시 말해 기화는 천지의 기의 변화이고, 형화는 부모의 기의 변화인데, 천지의 기가 아무리 왕성하게 어우러져도 부모의 기가 없이는 만물이 생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지의 기가 없이는 천명이 유행할 수 없고, 부모의 기 없이는 만물이 생성되는 형화의 이치는 끊긴다. 김창경은 이와 같은 구봉의 기화와 형화를 "태극음양, 이기

24)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問: 易云有天地然後, 有萬物, 有萬物然後, 有男女. 圖曰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二說之不同, 何也. 答: 易與圖皆言有天地然後, 有氣化, 有氣化然後有形化. 易繫辭天地絪縕, 萬物化醇, 氣化也, 男女構精, 萬物化生, 形化也. 圖之兩儀立, 天地也, 乾道成男, 坤道成女, 氣化也, 二氣交感, 化生萬物, 形化也, 何不同之有."

25)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旣有種類之後, 牝牡之形配而生之謂形化."

26)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未有種類之初, 陰陽之氣合而生之謂氣化."

www.kci.go.kr

의 묘합을 통해 전개되는 현상세계라 하였다.[27] 이상에서 볼 때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의 우주론적 차원인 "太極有動靜"은 천명의 유행이고, '기화'와 '형화'를 통해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 구조

퇴계와 율곡과 마찬가지로 구봉의 묘합적 사유는 '理在氣中'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 문: 남헌이 이르기를, "無極而太極"은 무위이면서 유위"라고 말했다. 그 말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옳지 못한 곳이 있는가?
>
> 답: 무위를 무극으로 이해하고 유위를 태극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극과 태극을 둘로 여기고 보는 것이다. 또한 하물며 유위는 기이고, 리는 본래부터 무위이지만 유위의 所以인 리가 기 가운데 있으니(理在其中), 남헌의 말은 옳지 않다. [28]

南軒 張栻(1133~1180)은 무극과 태극을 무위와 유위로 이해했다. 이에 대해 구봉은 무극과 태극은 리이고, 그 리는 무위의 속성으로 가졌으며 유위적 속성

---

27)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도학사상』, 책미래, 2014, 134쪽. 김창경은 기화와 형화는 구봉의 독창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구봉이 그 단계를 나누고 개념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의의를 찾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글 134-138쪽 참조.

28)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問: 南軒曰, "無極而太極, 言莫之爲而爲之." 其果信然耶, 抑有不是處耶.答: 以莫之爲, 釋無極, 以爲之, 釋太極, 是以無極太極, 爲二說看也. 又況爲之氣也, 理固莫之爲, 而所以爲之之理在其中, 此說非是." 남헌 장식의 말에 대해서는『朱子語類』, 卷九十四, 「周子之書」, 〈太極圖〉를 참조할 것.

www.kci.go.kr

을 가진 동정하는 기의 所以라고 논한다. 그리고 '理在氣中'을 리기묘합적 사유의 구조로 제시한다.[29] 또한 '理在氣中'의 묘합적 구조에서 태극인 리와 음양동정의 기를 체와 용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러면 태극과 음양의 동정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선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구봉은 태극은 음의 정에도 양의 동에도 변함없이 무소부재하는 본연의 묘이고 음양의 동정은 탄 기(機)라고 하였다.[30] 이와 같이 '理在氣中'의 묘합적 구조에서는 리와 기는 이미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본래부터 시간적 선후로 나눌 수 없다.[31] 이러한 의미에서 리와 기는 둘이면서 하나(二而一)이니, 리와 기를 배타적 이원으로 나눌 수 없다. 또한 리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로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뒤섞어 어느 하나의 속성으로 환원시킬 수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와 기는 하나이면서 둘(一而二)이니, 일원론으로 환원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理在氣中'의 구조에서 구봉의 독특한 사유전개를 볼 수 있다. 리기묘합적 사유의 존재론적 차원인 "太極含動靜"으로부터 이를 추론할 수 있다. 구봉의 〈太極問〉 81 조목 중에 "太極含動靜"에 관한 자문자답의 형식을 띤 4개 조목이 있다.[32] 그리고 "太極含動靜"을 함의하는 다수의 조목이 있을 만큼 리기의 존재론적 차원에 철저하려고 했다. 태극이 동정을 머금고 있는 "太極含動靜"을 구조화시키면 '氣在理中'인데, 이 구조는 퇴계의 존재론적 차원의 리기묘합적 사유구조이다. 퇴계는 '氣在理中'에 '理在氣中'이라는 우주론적 차원의 중층적 구조를 구상하여 互發·相須의 '互在其中'의 내함적 구조를 구축했다.[33] 이를테

29) 위 인용문에서는 '理在其中'으로 되어 있으나, '其'자는 기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理在氣中'이라고 하였다.

30)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問: 朱子嘗以太極爲體, 動靜爲用, 以太極陰陽分體用. 抑何義耶. 又曰, 太極者, 本然之妙, 動靜者, 所乘之機. 二說同耶異耶.答: 後說是, 不可分體用, 前說未穩."

31)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理氣旣不相離, 則固不可分先後."

32) 4개 조목은 10, 24, 28, 54 조목이다.

33) 김동희, 「退溪思想體系硏究를 위한 小考」, 『한국사상과 문화』8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222~229쪽 참조.

www.kci.go.kr

면 퇴계에게 '氣在理中'은 四端의 이론적 근거로서 리가 기를 주도하는 구조라면, '理在氣中'은 七情의 이론적 근거로서 기에 따라 리가 가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구봉은 '氣在理中'의 구조를 구축하지 않고 '理在氣中'이라는 단일한 구조를 유지한다. 대신에 "太極含動靜"의 존재론적 차원의 理의 수사학적 능동성에 있어서 퇴계를 따랐다. 엄밀히 말하면, 퇴계보다 理의 수사학적 능동성을 더 강력하게 표현한다.

> 동정하는 것은 기이고, 동정하나 동정이 없는 것이 리이다. 동정이 그 리에 반한 사람은 桀·跖이고, 동정이 그 리에 합한 사람은 堯·舜이다.[34]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에서 존재론적 차원으로부터 우주론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동정하는 것은 기이고, 동정하는 所以는 리이다. 그리고 그 사유의 구조인 '리재기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그 단일한 구조 내에서 '동정하나 동정이 없는 리'를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리가 실제로 동정하면 그 무위의 속성을 잃고 기의 속성으로 환원된다. 그러므로 비유나 은유와 같은 레토릭으로 표현한다. 걸과 척 그리고 요와 순이 '동정하나 동정이 없는 리'의 수사학에 등장한다. 리에 반한 사람은 桀·跖이고, 그 리에 합한 사람은 堯·舜이다. 그는 "太極含動靜"의 존재론적 차원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다.

> 리는 본래 미미하지 않은데, 기 가운데 있으므로(理在氣中) 미미해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뭇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성인에게 있어서 어찌 일찍이 미미함이 있겠는가?.....리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 리가 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미하다. 이숙헌이 "리에 소리도 냄새도 없다"고 한 것은 리가 본래부터 미미하다고 말한 것이다. 공(公)도 또한

34)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動靜者, 氣也, 動靜而無動靜者, 理也. 動靜之反其理者. 桀跖也.動靜之合其中者, 堯舜也." 강조는 필자의 것임.

www.kci.go.kr

다만 발현된 것이 미미하고 작다고 말했지 미미하고 작게 발현된 연유를 말하지 않았으니, 모두 미진한 바가 있다.[35]

위 인용문은『心經』의 '道心惟微'라는 문구에 대한 沙溪 金長生(1548~1631)의 물음에 구봉이 답한 서신이다. 이 서신에는 율곡과 사계의 미진함을 지적하는데, 이는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구봉에게 있어서 리는 본래 미미하지 않다. 오히려 리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리가 본래 미미하다고 한 것은 율곡의 미진한 점이다. 또한 구봉은 리가 미미하게 된 까닭을 '리재기중'의 구조에서 찾는다. 이 구조에서 리는 기에 가려져 있다. 구봉에 따르면 사계의 미진한 점이 여기 있는 바, 리가 미미하게 발현된 것만 보고 그 까닭을 말하지 않았다. 구봉의 존재론적 시간 '未嘗用事處'는 기에 가리지 않는 리의 순선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때이다. 구봉에게 성인은 우주론적 차원에서도 존재론적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V.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 구조에 입각한 사단칠정의 전개

구봉은 리기묘합적 사유는 '理在氣中'의 구조를 갖는데, 이를 심성론에 적용하면 심성묘합의 '性在心中'을 추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음양에 곧 선악이 있는가? 묻자 朱子는 "음양오행은 모두 선하다"라고 하였고, 또한 "음양의 리는 모두 선하다" 고 하였다. 이것은 리는 모두 선하고 기에는 선악이 있다고 한 것이다. 기에 선악이 있으므로 사람과 사물에 偏正(치우침과 바름)과 淸濁:(맑음과 탁함)의 다름이

35)『龜峯集』, 卷三,「雜著」,〈太極問〉, "理本不微, 在氣中, 故微而難見, 此在衆人說.....莫著乎理, 而以在氣中故微. 叔獻以理無聲臭.而云理本微. 公亦只言所發之微少, 而不言所以微小之故, 皆有所失."

www.kci.go.kr

> 있다.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기미(幾)에 선악의 나뉨이 있으니, 모두 리가 기 가운데 있고(理在氣中) 난 후의 말이다.[36]

위 인용구는 천명의 유행을 통해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품수 받은 기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그 차이에 따라 우주 만물은 천차만별인데, 치우치고 막힌 기를 얻은 것은 동식물이다. 그리고 바르고 통한 기를 받은 것은 사람인데, 그 바르고 통한 기에서도 淸濁의 다름이 있다. 또한 유행하는 음양의 기에 선악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이 막 발할 기미(幾)가 있을 때에 선악이 분기한다. 그러므로『通書』의 '幾'와『太極圖說』의 '感'은 한 가지 일로 動한 것이다.[37] 그런데 이와 같은 천차만별의 만물을 하나로 관통하여 무소부재한 것이 理이므로,[38] 천명의 流行도 사람이 情을 발함도 모두 '리재기중'의 구조에서 말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理在氣中'의 리기 구조를 심성의 구조로 추론하여 말하면 '性在心中'이다.

> 未動은 性이고, 已動이 情이고, 미동과 이동을 아우른 것이 心이니, 심이 성과 정을 통섭하는 까닭이다. [39]
>
> 性은 理이고, 知覺은 氣이고, 性은 靜이고 知覺은 動이며, 性은 性이고

---

36)『龜峯集』, 卷三,「雜著」,〈太極問〉, "或問, '陰陽便有善惡,' 朱子曰, '陰陽五行皆善,' 又曰, '陰陽之理皆善.' 此謂理皆善, 而氣有善惡也. 氣有善惡, 故有人物偏正淸濁之殊. 到人亦有幾善惡之分, 皆理在氣中後說也." 주희암의 말은『朱子語類』, 卷九十四,「周子之書」,〈通書〉를 참조할 것.

37)『龜峯集』, 卷四,「玄繩編上」,〈答浩原問〉, "幾與感是一事也, 皆屬乎動."『通書』의 '幾'는「雜著」장에 나오는 '幾善惡'이고,『太極圖說』의 '感'은 "五性感動, 而善惡分"에 나오는 말이다.

38)『龜峯集』, 卷三,「雜著」,〈太極問〉, " 千百其狀者, 氣也, 貫乎一者, 理也. 稟得氣之偏且塞者, 物也, 正且通者, 人也. 於通正之中, 又不能無淸濁之殊."

39)『龜峯集』, 卷四,「玄繩編上」,〈答叔獻書別紙〉, "夫未動是性, 已動是情, 而包未動已動者爲心, 心所以統性情也."

www.kci.go.kr

知覺은 情이다. 지각하는 이치는 비록 성에 있지만 지각하는 것은 기이다. 心統性情에 대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40]

구봉은 '性在心中'의 구조에서 性과 情을 각각 未動과 已動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그의 심성묘합적 사유에서 각각 존재론적 차원과 우주론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은 미동과 이동을 통섭하니, '心統性情'이고, '심통성정'의 구조적 표현이 '성재심중'이다. '심통성정'의 '성재심중' 구조에서 성은 심에 있는 理이고, '虛靈知覺'인 심은 기인데, 리는 심이 지각하는 이치이다. 이처럼 '理在氣中'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性在心中'구조에서 심과 성은 배타적으로 분리될 수 없고 어느 한 속성으로 환원될 수도 없다. 그런데 구봉이 性과 情을 각각 未動과 已動으로 정의한 것은 독특한 점이다. 이는 심의 성과 정은 未發과 已發로 개념을 규정한 율곡보다는 퇴계의 心之動이나 性之動의 개념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41][42] 물론 구봉도 성을 '희노애락의 미발'로 정의하기도 한다.

性은 곧 희노애락의 未發을 지칭하니 靜에 속한다.[43]

다만 위 문장에서 '희노애락의 미발'을 성으로 정의할 때 그 어세는 '靜에 속한다'에 가 있다. 그리고 성과 심을 정의할 때는 '性은 靜이고 知覺은 動이다'라고 하였으니, 性과 情의 관계를 말할 때보다 더욱 직접적인 어조이다. '性은 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性은 靜'이기 때문이다. 구봉이 말했듯이 성은 리이고 심(지각)은 기이고, 동정하는 것은 기이고, 동정의 소이는 리이다. 그런데 구

40) 『龜峯集』, 卷四, 「玄繩編上」, 〈答公澤問〉, " 性是理, 知覺是氣, 性是靜, 知覺是動, 性是性, 知覺是情. 所以知覺之理, 雖在乎性, 所以知覺者, 氣也. 看心統性情之說, 可知."

41) 『栗谷全書』, 卷十四, 「雜著」一, 〈雜記〉, "心之未發爲性, 已發爲情."

42) 『退溪集』, 卷二十九, 「書」, 〈答金而精(別紙)〉, "心具此理而能動靜, 故有性情之名, 性情非與心相對, 而爲二物也. 旣曰非二物, 則心之動, 卽性之所以然也, 性之動, 卽心之所能然也."

43)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性卽喜怒哀樂未發之稱, 屬乎靜."

www.kci.go.kr

봉은 마치 음양처럼 성과 심을 靜과 動으로 정의하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봉의 性과 情에 대한 정의를 다시 소환시켜 볼 때 그의 독특한 묘합적 사유가 드러난다.

> 未動은 性이고, 已動이 情이다. 미동과 이동을 아우른 것이 心이니, 심이 성과 정을 통섭하는 까닭이다. [44]

인용구에서 미동과 이동의 주체가 모호하다. 율곡은 심통성정을 통해 성과 정을 정의할 때 그 주체를 명백히 밝혀 각각 심의 미발과 이발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구봉의 경우는 밝히지 않았다. 미동과 이동의 주체가 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미동과 이동 사이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구봉은 '性發爲情'을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發'자 보다는 '動'자를 선택하였으니, '性動爲情'이다. 구봉에게 있어서 '動'자는 '幾'나 '感'과 같은 情의 시초를 의미하는 '發'일 뿐만 아니라 好惡之情과 같은 모든 정(情)의 단계에 통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45] 물론 '性發'이든 '性動'이든 거기에 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심통성정'의 '性在心中' 구조 내에서의 '性動'을 드러내기 쉽지 않다. 보이지 않은 심성의 존재론적인 차원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性動'은 실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은유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그 수사학적 표현은 강력하다. 구봉은 성을 靜이라 하였는데, 朱晦庵의 말을 빌어 靜을 '動之息'이라 하였고,[46] 陳北溪의 말의 빌어 性은 '마음 속

---

44) 『龜峯集』, 卷四, 「玄繩編上」, 〈答叔獻書別紙〉, "夫未動是性, 已動是情, 而包未動已動者爲心, 心所以統性情也."

45) 『龜峯集』, 卷四, 「玄繩編上」, 〈答浩原問〉, "幾與感是一事也, 皆屬乎動. 朱子以好惡之情, 差後於感與幾者, 此於動上極論等級也"

46)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以動爲發, 則當以靜爲未發, 此必朱子初年說也. 朱子曰, 一動一靜, 皆命之行, 又曰, 靜亦動之息爾." 주회암의 말은 『朱熹集』, 卷六十七, 「太極說」에 보인다.

www.kci.go.kr

에 있어 동하여 나올 수 있는 것(能動出來)'고 하였으며,[47] 더 나아가 程子의 말을 빌어 "情은 性之動이다"고 까지 하였다.[48] 이때 성은 선악이 없고 순선할 뿐인다.[49] 이로 보면 구봉은 심의 미발로부터 이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성의 도도한 흐름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 같다.

> 보내주신 서신에서 "사단은 리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고 말한 것은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 사단과 칠정은 어찌 理氣之發이 아니겠는가? 다만 한편으로 말하면 사단이고, 전체로 말하면 칠정인데, 사단은 리 일변을 위주로 한편으로 말한 것이고, 칠정은 리기를 겸하여 전체로 말한 것이다. 보내주신 말에 결함이 있는 듯하니, 다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50]

"사단은 리에서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 것이다"는 秋巒 鄭之雲(1509~1561)이 지은 〈天命圖(舊圖)〉에서 한 표현을 퇴계가 개정하여 "사단은 리발이고 칠정은 기발이다"고 정정하였다.[51] 추만의 사단과 칠정의 애매한 주체를 리

---

47) 『龜峯集』, 卷四, 「玄繩編上」, 〈答叔獻書別紙〉, "北溪陳氏曰, 且如一件事物來接着, 在內主宰者, 是心, 動出來, 或喜或怒者, 是情, 裏面有介物, 能動出來底, 是性, 運用商量, 要喜那人, 要怒那人, 是意." 진북계의 말은『北溪字義』, 卷上, 「意」장에 나오는 말이다.

48) 『龜峯集』, 卷四, 「玄繩編上」,〈答叔獻書別紙〉,"程子曰, 情者性之動也, 要歸於正而已, 亦何得以不善名之."

49) 『龜峯集』, 卷三, 「雜著」, 〈太極問〉, "問: 至成之者性, 然後氣質各異, 則善惡之分, 宜在斯矣, 周子却到五性感動處分善惡, 何耶. 答: 性無善惡, 純善而已. 至情動處, 便分善惡, 便知有氣質之性." '成之者性'은『易』(「繫辭傳上」)에 나오는 문구이고, '五性感動處分善惡'는 『太極圖說』에 나오는 문구이다.

50) 『龜峯集』, 卷四, 「玄繩編上」, 〈答公澤問〉, "來示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之說, 甚未穩. 四端七情, 何莫非理氣之發. 但偏言則四端, 全言則七情. 四端, 重向理一邊而偏言者也, 七情, 兼擧理氣而全言者也. 來說似有病, 更詳之."

51) 〈天命舊圖〉와 〈天命新圖〉에 대해서는, 『退溪集』, 卷四十一, 「雜著」, 〈天命圖說後敍〉, 1a-11a 참조; 이에 대한 간략한 서술은『高峯集(別集附錄)』, 卷二, 「請享疏」, 27b-28a , "明宗

www.kci.go.kr

와 기로 분명히 한 것이다. 구봉은 이러한 퇴계의 사단칠정의 互發을 추만을 통해 완곡하게 비판하고 있다. 구봉에게 있어서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고, 칠정 가운데 선 그 자체인 리 일변을 가리킨다.[52] '七包四' 라는 율곡의 정의 공식과 같다. 그러나 정의 발현과정이 다르다. 구봉은 퇴계와 같이 '互發'을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율곡과 같이 '氣發而理乘'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理氣之發'이라고 하였다. 구봉이 가진 묘합적 사유의 구조와 그 전개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봉의 리와 성에 대한 강력한 능동적인 수사학적 표현을 고려하면, '理氣之發'은 리기가 쌍발(雙發)하는 형상이다. 존재론적 차원으로부터 우주론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氣만이 아니라 理도 동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발하여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 도도한 흐름의 이미지이다.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로 말을 하면 '太極含動靜'의 생생지리, 천명의 유행이다. 이를 심성묘합적 사유로 말하면 심의 未動과 已動의 끊임없는 순환불이의 흐름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리, 곧 성도 또한 도도한 흐름으로 발하고 있는 것이다. 구봉이 心을 水에, 性을 水의 고요함(靜), 情을 물의 흐름(動)에 비유했을 때,[53] 물의 고요함을 탄 사단이 잠시도 멈추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의미일 것이다.[54]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理(또는 性)의 능동성에 대한 표현은 수사학적 이미지나 비유라는 점이다. 구봉에게 있어서 理가 능동적으로 發하여 氣와 더불어 실제 雙發하거나 動靜한다는 말이 아니다.

中年, 招入經明行修之士, 之雲以此圖說往示之, 諸賢皆以爲可, 李滉則作序文以嘉奬之. 但其圖中分書以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 滉改之曰,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 此所謂理氣之互發."을 참조.

52) 『龜峯集』, 卷四, 「玄繩編上」,〈答叔獻書別紙〉, "情之無不善云者, 拈出四端也, 情之有善不善云者, 統言七情也."

53) 『龜峯集』, 卷四, 「玄繩編上」,〈答叔獻書別紙〉, "譬之水.心猶水也, 性水之靜也, 情水之動也."

54) 『龜峯集』, 卷四, 「玄繩編上」,〈答叔獻書別紙〉, "四端之流, 無時或息."

www.kci.go.kr

Ⅵ. 구봉의 꿈

지금까지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와 구조 및 그 전개를 고찰했다. 구봉은 리기묘합적 사유의 존재론적 차원과 우주론적 차원을 '理在氣中'의 구조 아래 각각 '太極含動靜'과 '太極有動靜'으로 전개한다. 무엇보다 구봉은 존재론적 차원의 '태극함동정'을『太極圖說』의 '無極而太極'과 연계시켜, '무극이태극'은 본체의 기를 섞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존재론적 차원의 기(氣)인 '湛然虛靜'의 '太虛'는 태극(리)와 본래부터 합하고 있음을 논구한다. 퇴계와 율곡도 존재론적 차원의 본체의 기를 '湛一淸虛'의 氣로 논한 바 있으니, 구봉도 퇴율과 그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리기묘합적 사유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太極圖說』에 근거하고 있는 태극(리) 일원의 주자학적 발생론적 사고와 다르다. 또한 이는 퇴계와 율곡의 철학적 사유를 主理와 主氣의 대립으로 실체화한 다카하시의 이분법적 이원론적 사고와도 다르다. 리기묘합적 사유에서 리와 기는 존재하기 위해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고 분할 불가능한 원자론적 실체 개념이 아니라, 循環不已하면서 生生不息하는 형성과정 속에 있는 실재개념이다. 말하자면, 리와 기는 존재론적 차원으로부터 우주론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元不相離' 하면서 '實不相雜'하기 때문에 이원으로 이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에 일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

또한 다카하시의 학파를 당파와 연계시킨 연구는 구봉이 율곡의 기호학파와 친화성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퇴계의 리기묘합적 사유에 나타나는 리의 수사학적 능동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사유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리기묘합적 사유의 논술에서 구봉의 독특한 점은 존재론적 차원의 시간개념 '未嘗用事處'인데, 퇴계의 사단의 이론적 근거인 '未用事時'와 같다. 물론 기는 작용하지 않는 때는 없고 끊임없이 순환하고, 리는 무위하므로 그 능동성은 수사학적 표현이다. 다만 고요하고 맑은 본체의 기로 충만하면 순선한 본체의 리가 확연히 드러날 때를 구봉과 퇴계는 존재론적 시간으로 이해했고, 현실세계에서 요순과 같은 성인은 이러한 존재론적 시간을 사는 사람으로 파악했다. 구봉

www.kci.go.kr

은 퇴계와 더불어 존재론적 시간이 현저하게 드러난 그 순선한 본체의 능동적인 리를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반해 율곡에게 있어서 리의 능동성을 위한 그 어떤 수사학적 표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리와 성의 능동성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할 구조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퇴계와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에 각각의 독자성이 있다. 퇴계는 리기묘합적 사유를 '理在氣中'의 심층적 차원으로 '氣在理中'을 구조화하여 互發·相須의 '互在其中'의 구조에서 四端七情을 전개하는데 반하여, 구봉은 리기묘합적 사유구조인 '理在氣中'과 이에 입각한 심성의 '性在心中' 구조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사단칠정을 전개한다. 다시 말해 구봉은 '理在氣中' 구조에서 氣에 있는 존재론적 차원의 理와 '性在心中' 구조에서 心에 있는 본연의 性, 곧 太極含動靜의 능동성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했다. 사실 사단칠정론의 전개에서 구봉은 퇴계보다 氣에 의해 理가 가려지는 왜곡된 현실을 보면서도(理在氣中의 현실), 순선한 理의 소극적 능동성을 넘어 역동적인 도도한 흐름을 보고 있다. 구봉은 이러한 理의 역동적인 흐름을 퇴계의 '互在其中'의 구조보다는 현실적 구조를 곧바로 대면할 수 있는, 말하자면 리가 기에 가려진 '理在氣中'의 구조, 그리고 이에 기초한 '性在心中'의 구조에서 '이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는 理'를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봉의 '理氣之發'에 의한 사단칠정이다. 이러한 구봉의 리기묘합적 사유와 구조 및 전개는 몸뚱이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누더기를 걸치고,[55] 한 나뭇가지에도 둥지를 치지 못하는 새처럼 떠돌지만,[56] 그래도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며 은둔의 삶을 즐기고,[57] '與人同樂天(사람들과 더불어 하늘을 즐김)'[58]을 꿈꾼 구봉의 삶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

55) 『龜峯集』, 卷一, 「詩上」, 〈走筆書懷〉, "百結未掩髂, 霜風蕭瑟兮."

56) 『龜峯集』, 卷二, 「詩下」, 〈傷歎〉, "驚飛靡定一枝巢, 治亂嬰懷鬢髮凋."

57) 『龜峯集』, 卷一, 「詩上」, 〈名者實之賓詩〉, "嗟我早定內外分, 曳尾塗中樂隱淪."

58) 『龜峯集』, 卷一, 「詩上」, 〈天〉, "所以能事天. 聽之又敬之, 生死惟其天, 旣能樂我天, 與人同樂天."

www.kci.go.kr

참고문헌

【일차자료】

『花潭集』, 韓國文集叢刊 24, 민족문화추진회, 1988.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30, 민족문화추진회, 1989.

『龜峯集』, 韓國文集叢刊 42, 민족문화추진회, 1989.

『批選龜峯先生詩集』, 三陟鄉校, 1964.

『栗谷全書』, 韓國文集叢刊 44-45, 민족문화추진회, 1989.

『經書』, 대동문화연구원, 1970.

『四書章句集注』, 중화서국, 2012.

『性理大全』, 보경문화사, 1994.

『二程集』(상, 하), 중화서국, 2012.

『張子全書』, 대만중화서국, 1966.

『周敦頤集』, 중화서국, 2010.

『朱子語類』, 중화서국, 1983.

【단행본】

구봉문화학술원,『구봉 송익필 학문, 기호유학에서의 위상』, 책미래, 2018

————————, 『잊혀진 유학자 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 책미래, 2016.

김창경,『구봉 송익필의 도학사상』, 책미래, 2014.

裵宗鎬, 『朝鮮儒學史』, 延世大學校出版部, 1974.

송익필·성혼·이이 지음, 임재완 옮김, 『세 분 선생님의 편지글(삼현수간)』, 호암미술관, 2001.

이종호,『구봉 송익필: 타고난 멍에를 짊어지고 산 철학자』, 일지사, 1999.

장주식,『삼현수간(三賢手簡) 율곡 우계 구봉의 산촌 편지』, 한국고전번역원, 2013.

張志淵, 『朝鮮儒教淵源』, 匯東書館, 1922.

www.kci.go.kr

정진석, 정성철, 김창원 공저, 『조선철학사』(상), 과학원출판사, 1960.
조남권·이상미 공역,『송구봉시전집』, 박이정, 2003.
주홍성·이홍순·주칠성 공저, 김문용·이홍용 (역),『한국철학사상사』, 예문서원, 1993.
주희 지음, 곽신환·윤원현·추기연 옮김,『태극해의』, 2009.
최봉익, 『조선철학사개요』, 사회과학출판사, 1986.
玄相允,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49.
황의동, 『율곡사상의 체계적 이해』1, 서광사, 1998.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965.
高橋亨(著), 川原秀城, 金光來(編譯), 『高橋亨朝鮮儒學論集』, 知泉書館, 2011.

【논문】

김기현, 「退溪의 〈리〉철학에 내재된 세계관적 함의」,『退溪學報』제116집, 2004.
김동희, 「退溪思想體系硏究를 위한 小考」, 『한국사상과 문화』8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 「퇴율의 묘합적 사유」,『퇴계학논집』18,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김창경, 「구봉 송익필의 율곡학설 비판에 대한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93, 한국사상문화학회, 2018.
———, 「龜峯 宋翼弼의 性理學에 대한 철학적 검토」, 『한국사상과 문화』54,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리기용, 「타카하시 토오루(高橋亨) 조선유학 이해의 허와 실」, 『율곡학과 한국사상의 심층연구: 태암 황의동교수 정년기념 논총』, 책미래, 2014, 1000~1029쪽.
문석윤, 「퇴계에서 리발(理發)과 리동(理動)과 리도(理到)의 의미에 대하여: 리(理)의 능동성 문제」,『退溪學報』제110집, 퇴계학연구원,
尹絲淳, 「高橋亨의 韓國 儒學觀 檢討」, 『한국학』12집, 영신아카데미한국학연구소, 1976.

www.kci.go.kr

———, 「현암의 다산사상 이해에 적용된 시각문제」,『공자학』19, 한국공자학회, 2010.

이상익, 「理氣一元論과 理氣二元論의 哲學的 特性」, 『退溪學報』제91집, 퇴계학연구원, 1996.

황의동, 「율곡'理氣之妙'의 현대적 의미」,『유학연구』12, 충남대학, 2005.

高橋亨,「李朝儒學史に於ける主理派主氣派の發達」, 『韓國支那文化の硏究』(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第二部論纂第一輯), 刀江書院, 1929.

www.kci.go.kr

Abstract

The Gubong Songikpil's Thought of *Li-Gi* Myohap - Pursuing a Methodology for Korean-Confucian Philosophy -

Kim, Dong He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of Korea, Jeonju University)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the study of Korean-Confucian philosophy is on the methodology, how to explore its thought.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philosophical thought of Korean-Confucianism have implicitly relied on the exclusive and dualistic framework that Takahashi Toru(高橋亨) is classified in terms of *Ju-Li*(主理) and *Ju-Gi*(主氣), and on the Chinese Neo-Confucianim's generative thought of Taegeuk(太極)-Monism. Of course, the limitations that Takahashi's research is based on the political section linking school and faction and that it has an ideological background with modern Western philosophy's substantial thought, are explained. However, these studies criticized Takahashi' academic trends or attitudes, not the philosophical thought and research method of Korean-Confucian philosophy. On this problematic this paper explores Gubong's thought of *Li-Gi-Myohap*(理氣妙合), its structure and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exploration it shows Gubong as like Toegye and Yulgok shares the thought of *Li-Gi-Myohap* for avoiding the Chinese thought of

www.kci.go.kr

Taegeuk-Monism; and, that unlike Toegye and Yulgok, he develops his own original thought of *Li-Gi-Myohap*, which is closely related to Yulgok's school and faction but conformed to Toegye's philosophical thought that puts an emphasis on Li's activity in rhetoric. The summary of Gubong's thought of *Li-Gi-Myohap*, its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are as follows. Gubong develops the ontological and cosmological dimensions of the *Li-Gi-Myohap* thought into *Taegeuk-Ham-Dong Jeong*(太極含動靜) and *Taegeuk-Yu-Dong Jeong*(太極有動靜) respectively in the structure of *Li-jae-Gijung*(理在氣中) , and delivers a discourse on the theory of *Sadan-Chiljeong*(四端 七情) in the structure of *Seung-jae-Simjung*(性在心中).

Key-words

Gubong(龜峯) Songikpil(宋翼弼), *Li-Gi Myohap*(理氣妙合: The Marvel of Principle-Vital Force), *Li-jae-Gijung*(理在氣中: Principle is in the Vital Force), *Seung-jas-Simjung*(性在心中: The Nature is in the Mind-and-Heart), *Taegeuk-Ham-Dong Jeong*(太極含動靜: Ultimate Reality includes Movement and tranquility), *Taegeuk-Yu-Dong Jeong*(太極有動靜: Ultimate Reality has Mov ement and tranquility), *Sadan-Chiljeong*(四端七情: Seven-Four Feelings)

논문접수일 2021. 11. 18. 심사완료일 2021. 12. 27. 게재확정일 2021. 12. 27.

www.kci.go.kr